

### 33) 선천성 경부 종양의 임상적 고찰

울산의대, 서울 중앙 병원

\*

이기천 · 유영상 · 김인구 · 추광철

선천성 경부 종양은 표재성, 무통성 종물로 임상적으로는 이차적 감염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학적 검사 및 경부 초음파 검사로 임상적 진단은 용이하나 확진을 위해서는 수술후 조직병리검사가 필수적이다.

저자들은 최근 2년간에 서울중앙병원에서 경부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여 수술후 조직병리검사로 확진된 47례에 대해 후향적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1) 총 47례중 갑상선 낭종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31.9%) 새성낭종(25.5%), 낭포성 히그로마(21.3%), 유포피낭포(14.9%), 혈관종(6.4%) 순이었다.
- 2) 성별 분포는 남녀간의 큰 차이 없었다. (남 46.8%, 여 53.2%)
- 3) 연령별 분포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63.9%)
- 4) 위치별 분포는 경부중앙(42.6%), 우측경부(38.3%), 좌측경부(19.1%)를 보였다.
- 5) 주된 증상은 경부 종물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증상의 기간은 1년 미만이 (53.2%) 가장 많았다.